

해외양계신문



멕시코

닭고기 수출국으로 전환

멕시코에서 규모가 큰 식품가공회사중에 하나로 알려진 Sigma사가 미농무부(USDA)로부터 미국 시장에 닭고기(쇠고기, 돼지고기 포함)를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미국 시장에 16번째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미농무성에 따르면 Sigma사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위생조건 등 여러면에서 수출의 결격조건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로써 Sigma사는 앞으로 5~8년 사이에 5천만달러어치의 축산물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97년 매출액은 약5억4천만달러였으며 닭고기는 당분간 미국에서 도계육을 매달 1만파운드를 사들여 가공후 자사상표를 붙여 미국에 되파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Sigma사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캐나다는 물론 유럽연합(EU)에까지 수출선을 뻗칠 포부를 밝히고 있다.(PI)

폴란드

경기회복에 따른 닭고기 소비 급증

폴란드의 농업식품경제연구소는 금년도 폴란드의 가금육 소비가 '97년에 비해 10% 이상 신장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초반의 양계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후반기에는 돼지고기소비에 밀려 양계산물 소비의 증가폭이 다소 줄것으로 내다보았다. '97년 가금육의 소비는 총 54만6천톤으로 '96년도에 비해 20%나 증가한 물량이다. 이는 구소련 붕괴 이후 침체일로를 겪던 동유럽국가들의 경제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량 증가와 함께 수입량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WP)

제10차 유럽가금협의회 개최

이스라엘 독립 50주년과 연계해 개최

이스라엘에서는 오는 6월 21~26일 6일간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21세기를 향한 제10차 유럽가금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와 어우러져 개최될 이번 행사는 가금에 대한 전반적인 심포지엄 및 워크샵이 준비되며 전시회도 겸해 열려 볼거리도 다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PI)

나이지리아

'98년 1월 1일부로 양계산물 수입 전면개방

나이지리아가 '98년 1월 1일부로 일부 가금 산물(닭, 오리, 칠면조 계란)에 대해 전면 수입을 개방하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닭고기와 계란에 대해 '85년부터 12년간 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양계산물(생체, 냉동품, 냉장 품)에 대해 수입개방을 하게된 이유로는 국내 양계산물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생산자들은 수입 개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정부에서는 물가억제책을 위해 가격이 계속 높을 경우 수입개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양계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 150%의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병아리는 면세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PI)

뉴질랜드

엘니뇨 양계산업 강타

전 세계가 엘리뇨에 의해 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중 뉴질랜드는 계속되어지는 가뭄과 더위로 양계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초반부터 30°C를 웃도는 날씨로 양계업자들이 쿨링패드와 안개

분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온에 대비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이러한 시설마저 무용지물이 되고있다고 한탄할 정도이다. 더욱이 많은 부분을 수력 발전기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뉴질랜드 지역에서는 물부족과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공급은 물론 생태계 파괴까지 환경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관측자들은 고온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으며 세계적으로 볼때 엘니뇨와 반대현상인 라니냐가 이상기온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P)

일본

닭에게 차잎(茶葉)을 급여하여 큰 효과

일본의 시즈와이(靜岡)현의 한 가축시험장에서는 차잎을 사료에 첨가하여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하였다. 차잎에는 비타민E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식욕감퇴 방지는 물론 강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착안해 육용계에게 차입의 분말을 사료에 약 3% 정도 첨가하여 급여한 결과 계육내에서 비타민 A와 E가 다량 함유되어 나왔으며 신선도 보존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산란계에게 같은 성분을 사료에 1% 정도 첨가하여 급여한 결과 난황중에 비타민E의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료회사와 연계하여 상품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차잎은 이미 양식 물고기에게도 실험해 좋은 효과를 인정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鶴鳴新聞)